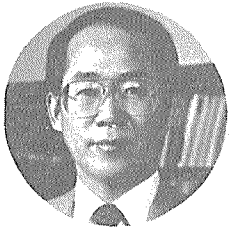


한국에너지정책연구의 산실

金 鍾 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이회성 원장)

1973년 이래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국민경제에서의 에너지 자원 역할이 재조명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기능의 중요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자, 정부는 관련연구기관의 활성화 및 효

율적 정비 그리고 정책개발 지원체제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 1979년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되고, 80년에는 대한석유협회가 발족되는 한편, 에너지 및 자원분야가 통합된 한국동력자원연구소도 출범하였다. 석유협회에서는 81년 봄 월간 「석유협회보」를 창간, 제2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80년대에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석유정세에 대응해가는 동력자원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왔는바, 이제 6월로 지령 100호를 맞는다.

이를 기념하여 本誌는 自視 기획기사의 일환으로 당시 출범 이후 에너지문제 조사·연구에 매진하여 온 동력자원연구소의 정책연구부 - 1986년에 독립·확대된 에너지經濟研究院을 탐방, 그간의 활동과 현황 등을 알아 본다.

오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로운 特別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3개월 후에 만 3주년이 된다. 기본적인 임무와 추구방향은 에너지·자원의 수급활용상 최대한의 경제성提高이며 나아가 안정확보를 위한 개발전략과 교역·유통의 합리화이다. 그러한 방향에서 종전에는 시급한 에너지상황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수립에 주력하였으나, 그 작업의 성과와 함께 세계 에너지정세의 안정화추세에 따라 이제는 좀더 장기적인 목표와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한 총체적 발전전략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새로운 출범 이후 조직의 세분화·확대를 이루는 바, 종사원규모를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현재기구가 5個室·5個研究팀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기구표 참조>.

시장기능의 규명과 보완책 추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연의 임무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조직정비·체계화를 추진한 李會晟원장이 천명하는 현시점의 업무자세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처럼 상당량의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공급원에 의존하는 나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관리체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단한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합리성 충족의 기준에서 경제활동의 主軸인 시장기능의 역할과 한계를 규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기능 보완목적의

〈현재의 에너지경제연구원 건물〉



제반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시장기능은 우리 정부가 최근 수년간 주창해 온 민간주도의 경제운용基調에 필수적인 바탕이지만,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속도와 진폭의 문제가 각 산업별로 논란이 많아지는 한편 실제 적용에 있어서 복잡한 이해관계 상충 및 왜곡현상이 빈발하는 실정이므로 업계의 책임의식과 자율조정을 여하히 강화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원으로서 시장기능의 바람직한 모델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규모와 구조의 개선을 위한 보완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지원토록 연구하겠다는 뜻이겠다.

더우기 어느 분야 보다도 자율화·국제화 추진상의 難題가 많은 것이 에너지·자원부문이고 보면, 또 석유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이 그렇듯이 그동안 소비지정 제원칙에 입각한 석유정책이 정부주도하의 권위적 보수성이 강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네 석유사정임을 감안할 때, 요즘의 이른바 경제자율화 물결속에서 에너지업계의(특히 석유업계도) 동력자원부 산하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보통 이상이다. 그러므로 李會晟원장 이하 연구인력 100여명의 사

명감과 부담감 또한 보통 이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광범위한 전문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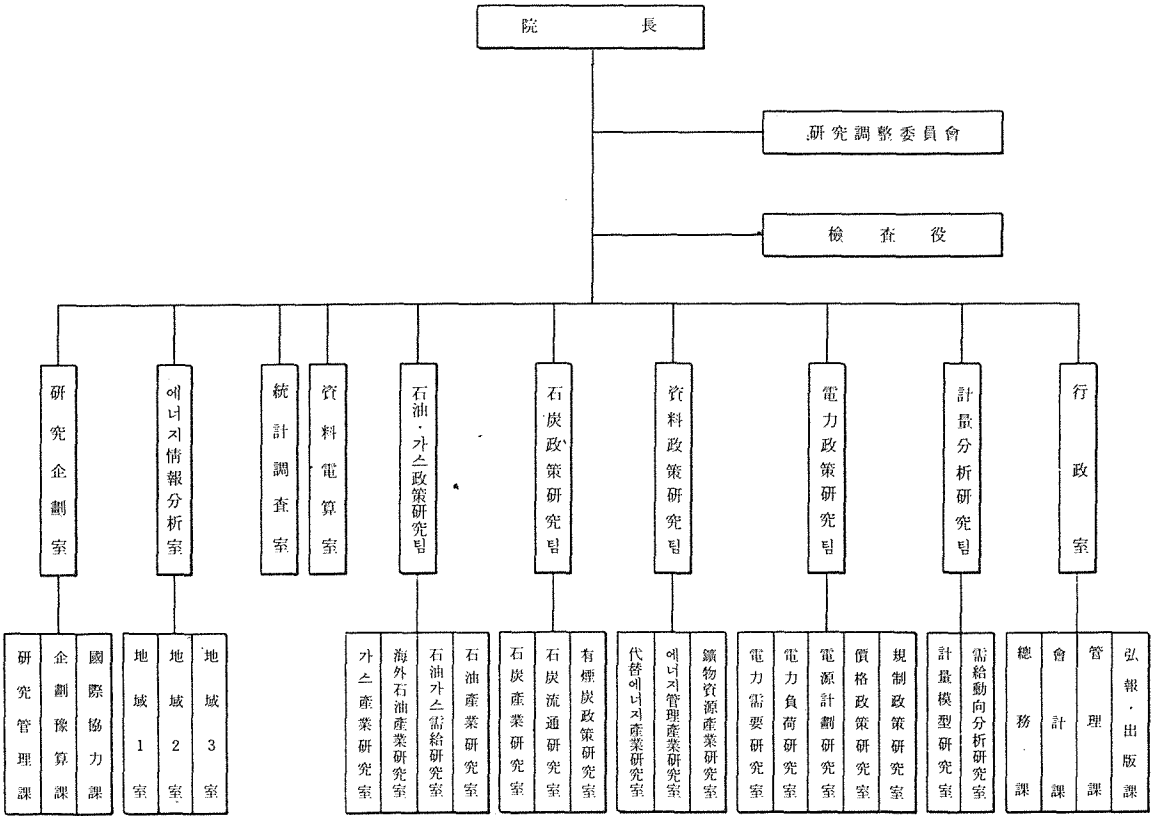
- 소수정예의 연구진 포진 -

현재 이 연구원의 분야별 기능과 주요 실적만을 살펴 보아도 상당한 볼륨이다.

(1) 에너지정보분석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시장의 교역동향을 신속히,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러한 수급·가격에 관한 국제시장흐름을 취재·분석하여 週刊「에너지動向」, 月刊「國際에너지시장動向」을 발간, 관계 기관 및 업계에 무상배포. 비슷한 작업을 하는 기관이 두 세 곳 있으나 가장 전문적이고 심화된 정보임을 他共認하는 수준. 앞으로 취재원을 넓히고 電算化함을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구표〉



로써 종합분석을 강화한다. 「에너지정보분석실」에는 沈相烈실장 이하 전원이 연중무휴로 바쁘다.

(2) 石油·가스部門

우리나라 1차에너지의 主宗이 석유이며 그동안 석유 사정이 굴곡이 많아, 자연히 石油·가스부문에 중점을 두어왔다. 특히 소비자 및 대수요처에게 비싸지 않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구조분석과 아울러 해당산업행태연구를 통해 정책代案을 제시하기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교역 ▲도시가스와 LPG공급지역 분배적정화 ▲北方의 에너지자원 ▲석유화학 원료대체 등을 취급한다. 그러나 석유업계가 관심이질만한 主題는 ▲石油事業基金의 효율적 운용방안 ▲국내석유산업 長期發展對策▲정유산업 설비투자 ▲국내대륙붕 탐사개발 등으로서 일부는 이미

기본연구에 착수한 상태.

石油·가스政策研究팀에는 辛常吉팀장을 포함해 3인의 박사학위자가 있고 4個室로 운영된다.

(3) 石炭部門

한국석탄산업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그 개선책강구는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同 연구원은 수년에 걸쳐 수요관리방안 / 구조개선 / 탄광근로자 수급 및 임금정책 / 수송합리화 / 적정마진 등에 관한 연구실적을 쌓았고, 그 내용을 집약하여 관계법령으로 골격개정까지 완료함으로써 의목적 작업성과에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연구계획을 ▲수급조절 ▲탄광근로자 생활향상 ▲정부의 지원제도 효율화 ▲무연탄시장개발로 설정하고 있다. 石炭政策研究팀 李元

이 연구원의 여러 분야는 모두 중요하지만 本誌탐방으로서는 석유부문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 86년9월 에너지經濟研究院法에 의거해 새로 발족하기 이전에는 뿔뿔이 해도 연구나 정책협의에 있어 石油중심이었고 가스도 石油에 포함된 일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스부문이 독립, 가스産業研究室로 되었다. 그 외의 3개 실은 석유산업연구실, 해외석유산업연구실, 石油가스需給연구실이다.

이중 석유를 맡고 있는 李福載실장은 3년전부터(해성과 같이 귀국하여) 각종 세미나와 논문발표 등의 활동이 많았다. 특히 석유산업의 自律化移行을 위한 단계적 규제완화작업에 설득력있는 아이디어를 當局과 함께 산출했다. 정책면에서는 石油事業基金이 외국에 비해 독특한 점인데, 그 운용의 효율성을 석유·가스需給연구실의 金辰炯박사가 연구하고 있다. 또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것은 辛常吉실장이 맡았는데 그는 石油·가스부문의 연구팀長도 겸한다.

한편 얼마전부터 가스정책 쪽으로 옮긴 李英九실장은 LPG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기에 바쁘다. 그는 종전 석유정책 연구시에 ▲석유정제 적정감모율 ▲送油管설치 ▲유통구조 개선 ▲수급적정화방안 등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정책발전에 반영되었고, 時差는 있지만 요즘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李실장의 바램은 이러하다. 『우리 研究院의 작업은 순수·독자성을 갖는다. 따라서 업계의 솔직한 제시와 능동적 협조, 長期性중시를 바라고 싶다. 또한 연구원에 부족한 전문자료 확충과 폭넓은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해당업계의 본격적 지원이 요청된다.』

내년에 新廳舎완공·移轉

에너지經濟研究院은 현재 장안동 주택단지 속에 있어서 연구환경이나 건물규모·진입로 등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한국전력 소유부지 2,500평(경기도 의왕

시)을 出捐받아 연건평 2,000평의 신청사를 이번 6월에 착공, 금년말 완공계획이라한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함을 계기로 研究院의 업무환경이 월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한 성과도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電力부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으로서 에너지투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電力에서의 투자합리성제고라는 과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력정책연구팀 辛廷植팀장은 『전력부문에서는 기초자료와 기본적 저변연구가 매우 모자란다. 경제성평가에도 적용기준이 될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은 기초축적에 힘쓰고, 곧이어 수용가 위주의 공급제도, 국제경쟁력배양을 모색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電力業에는 전통적으로 公企業의 비효율성이 내재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석유업계에 대한 한 말씀 충언을 부탁받은 李원장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석유업계가 제1차적으로 주력할 일은 지금의 下流部門중심사업을 上流部門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국제석유메이저들의 原油自給率은 60% 내외에 달하여 再投資가 용이하다. 우리도 성장하려면 精油工場만의 사업을 탈피하여 업·스트림으로의 수직결합기업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외국·선진국에서는 석유기업 경영진이 그 나라 비즈니스部門 톱·클래스이다. 또한 기업만의 발전을 도모하기에 앞서 국민경제의 발전, 경제계의 명분과 실리를 증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간다. 우리 석유업계도 그만한 인력과 철학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시장화 실현과정에서 총체적 경제성을 살리면서, 파괴적 과당경쟁을 피하도록 當局과의 조절 및 업체간 협력에 힘쓰겠다.』

이러한 뜻이 우리업계 경영진에게 쩡 울리기를 바라면서, 또한 지금 同院에서 마무리 작업중인 「2010년의 에너지展望」에 대한 修正프로젝트에서 바람직한 석유산업의 未表象이 제시되길 바라면서 탐방의미를 새겨 본다. ☐

버린손 미운손 좁는손 예뻐손